

전주의 무형문화 책을 통해 세계로

아태무형유산센터 발간 계간지 '꾸리에'에서
무형문화유산·도시재생 모범사례로 소개돼

전주의 무형 문화유산이 아태무형유산센터에서 발간하는 계간지 '꾸리에' (ICH Courier)를 통해 전 세계에 소개됐다. 국립무형유산원 내에 자리하고 있는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48개 유네스코 회원국들과 함께 위



아태무형유산센터에서 발간하는 계간지 '꾸리에'에 소개되고 있는 전주의 모습.

국립무형유산원 내에 자리하고 있는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48개 유네스코 회원국들과 함께 위

이곳에서 발행하는 '꾸리에'는 아태 지역의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정보와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 2009년부터 발행한 계간지로, 유네스코 파리 본부를 포함, 전 세계 약 90여 개국에 배포되고 있다.

2018 여름호로 발행한 '꾸리에' (제35호, 6월 21일 발행)는 총 4쪽에 걸쳐 '무형문화유산과 도시재생'이라는 주제로 전주의 오랜 역사와 풍부한 무형문화유산과 이러한 무형자원을 바탕으로 구도심 한옥마을을 유령관광지로 재탄생시킨 사례로서 전주를 소개

했다. '꾸리에'는 전주가 한옥 보존과 신축 지원, 전통문화 프로그램 개발, 문화관광 서비스 등 전통문화 콘텐츠로 구도심을 살리고, 천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대한민국의 명소를 거듭났다고 설명하며, 전주시가 전통을 현대에 잘 계승하고 있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전통문화를 즐기는 도시라고 소개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해 전주가 아시아에서 꼭 가봐야 할 도시 3위로 선정되어 CNN에 보도되었고 올해는 영국 가디언지가 전주를 대한민국 음식문화의 수도라고 극찬했다"며 "이제 꾸리에를 통해서 전주가 무형문화유산과 도시재생의 선도지로 알려지게 되었다. 도시재생의 핵심인 구도심 아시아문화심장터 백만평을 성공시켜서 전주를 글로벌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꾸리에'는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홈페이지 (www.ichcap.org)에서 볼 수 있고, 이 사이트에서 전자책(영문)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송효철 기자



장마 때문에 출항 못하는 어선들

9일 군산시 어청도 배 전복 사건과 을씨년스러운 장마의 날씨 때문에 군산 비응항의 부두가 출항하지 못한 배들로 가득 차 있다.

전북도, 대표 생생마을 4곳 선정 | '소득·체험' 완주 창포·'경관·환경' 완주 고산촌 '문화·복지' 순창 두지·'아름다운 농촌' 진안 상가막

제5회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전라북도 대표 생생마을로 완주 창포·고산촌마을, 순창 두지마을, 진안 상가막마을이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콘테스트는 지난 6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12개 마을주민과 생생마을 만들기에 관심이 있는 도민, 공무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 본보 7월 9일자 2면) 이날 콘테스트는 마을단위 4개 분야 ▲소득·체험 ▲경관·환경 ▲문화·복지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



송하진 전북도지사

가loch 닦은 마을연극, 사물놀이 공연, 다듬이 공연, 합창공연, 마을상품전시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문화·복지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에 대해 나뉘는 1차 서면·현장 평가를 통과한 마을의 생생마을 만들기 우수 사례 발표와 주민들이 틈틈이

콘테스트 결과 분야별 영예의 최우수상에는 소득·체험분야 완주 창포마을, 경관·환경분야 완주 고산촌마을, 문화·복지분야 순창 두지마을,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 분야 진안 상가막마을이 각각 선정됐다. 이날 송하진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민선 7기에도 삼라농정을 진화시킨 삼라농정 농생명산업으로, 농민의 삶과 농촌의 풍경을 활력 있게 바꿔가겠다"면서 항상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위해서 곳곳에 농촌을 지켜 온

주민들과 관계자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 분야별 최우수상을 받은 4개 마을은 오는 8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제5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 전북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한편, 콘테스트에 참가한 마을 주민들은 "콘테스트를 통해 다른 우수한 마을들의 장점을 공유함과 동시에 '우리도 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계기가 되었다"며 참가 소감을 밝혔다. /김진성 기자

도교육청, 정부 추진 고교학점제 자체 계획 마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교학점제 등과 관련 전북도교육청이 자체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9일 열린 확대간부 회의에서 "정부가 2022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고교학점제와 이에 대한 토대가 되는 과목선택제와 관련해 전북교육청 자체 계획을

세우는 작업을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김 교육감이 언급한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학생들이 교과를 선택해서 수업을 듣는 방식인 '과목선택제'를 토대로 학점과 졸업을 연계하는 제도이다. 그는 "제도가 시행되기까지는 교사

확충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겠지만 특히 학생들에게 빈 시간을 활용할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선진국 학생들을 보면 수업이 없는 시간에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도서관이지만 교육부의 종합 대책에는 아직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많이 모일 도서관도 필요하고, 가볍게 스포츠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줘야 한다"며

"그렇게 돼야만 진정한 의미의 과목선택제가 되는 것인만큼 교육부의 대책만 기다릴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 교육의 특징이 획일성 교육이고, 프루크루테스의 참대 교육이라는 말도 나온다"며 "이런 교육 시스템으로는 고교학점제, 과목선택제에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울만큼 자체적인 연구검토를 통해 한발짝이라도 점진적으로 도입할 건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세계를 향해, 시민과 함께
찬란한 전주시대를 열겠습니다